

## 바람에 관한 서해 어민의 민속지식\*

조숙정\*\*

바람은 어민들이 바다에서의 항해 및 조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씨 조건이다. 이 글은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련 어휘 분화의 발달 관계를 보여주는 민족지적 사례 연구로서, 어촌 사회에서 바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명칭과 민속구분법에 초점을 맞추어 어민들의 민속지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한 민속지식이 어로활동 및 바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해 본다. 바람의 민속구분법이 보여주는 곱소만 어민들의 인지체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간상으로는 따뜻한 계절에 부는 바람이 그리고 공간상으로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특성상 동쪽으로 만입한 만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는 어로시기 및 어로공간과 바람의 관계에서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관심이 발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어민들의 바람에 대한 풍부하고 독특한 분류 지식이 특정 기후현상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어로시기 및 어로공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달한 것임에 주목한다.

〈주요개념〉: 바람, 민속구분법, 민속지식, 민족과학, 민족기후학, 서해 어민, 어로활동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제6장 바람의 민속구분법: 기후의 지식”(조숙정 2014: 257-287)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1. 머리말

바람은 어민들이 바다에서의 항해 및 조업 가능 상태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날씨 조건이다. 어민들이 보이는 바람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지각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기후현상으로서 바람의 중요성 때문이다. 어촌 사회에서의 바람에 대한 문화적 강조(cultural emphasis)는 그에 상응하는 어휘 분화(lexical elaboration)의 발달이라는 언어현상으로 보통 나타난다. 그래서 환경과 문화의 관계에서 바람의 중요성과 명칭체계의 발달은 어촌 사회의 특수한 언어문화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어 왔다.

한국 어촌 사회에서의 바람 이름 곧 풍명(風名)의 발달은 일찍이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어휘론 또는 방언학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방중현 1931, 1939; 홍순탁 1963: 82-86; 이승녕 1967: 302-304; 장태진 1968).<sup>1)</sup> 환경과 언어문화의 관계에서 바람에 대한 본격적인 인류학적 연구의 시작은 아마도 왕한석의 일련의 ‘언어 민속지(linguistic ethnography)’ 연구일 것이다(1994: 607-612, 2009a: 34-38, 2009b: 131-133, 2010a: 38-44, 2010b: 224-226, 2012a: 51-59, 2012b: 341-342). 이 ‘언어 민속지’ 연구는 풍명의 구분을 넘어 바람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어촌과 농촌의 바람 구분법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어 매우 유용한 사례 연구다.

그러나 풍명 연구들은 대개 방위(方位)와의 관계에서 바람의 어휘체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었다. 방위별로 구분된 바람들이 다른 의미차원에서 범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지 못했고, 실제로 바람의 분류 지식이 어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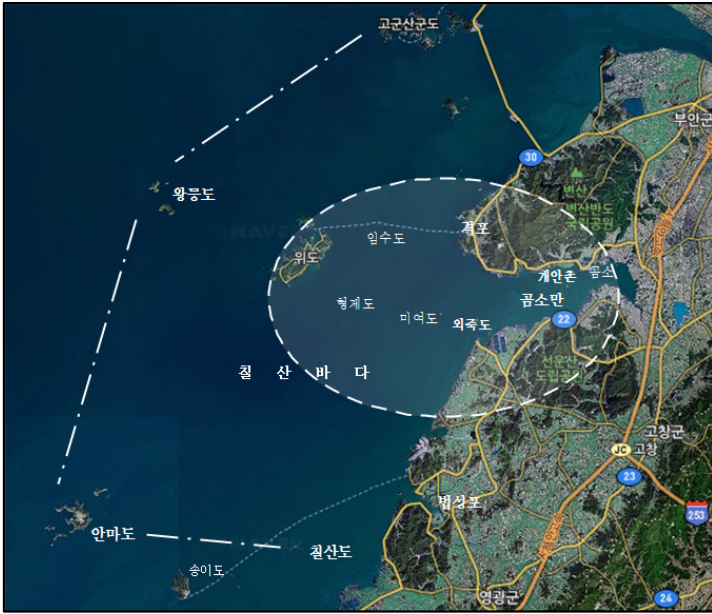
---

1) 방중현(1931, 1939)의 연구는 어촌과 바람보다는 한국어와 방위 명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풍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에 해당한다.

여주지 못했다.

본고는 민족과학(ethnoscience) 또는 민족의미론(ethnosemantics)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해(Conklin 1955, 1962; Frake 1961, 1962; Sturtevant 1964; Colby 1966; Tyler 1969; Spradley 1972; Casson 1981, 1983; 왕한석 1996; 김주관 2007 등), 서해 어민들이 바람을 구분하고 인지하는 방식을 민족지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민속명칭(folk terms)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람의 민속구분법(folk classification)의 발견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바람의 명칭과 범주화에 대한 어민들의 민속지식(folk knowledge)이 어로활동 및 바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의 구분법을 기술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연구지에서의 기본적인 바람의 구분법을 보여주는 방위에 따른 바람의 명칭과 범주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계절에 따른 바람의 기후적 속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구분법을 밝혀낼 것이다. 셋째, 어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바람이 어떻게 이용되고 구분되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고는 어민들의 바람에 대한 풍부하고 독특한 분류 지식이 특정 기후현상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어로시기 및 어로공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달한 것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민족과학 연구는 “언어와 문화는 밀접히 관련되고 전자가 후자를 이해하는 데 열쇠를 제공한다”는 Sapir 이후 언어인류학의 관점을 계승함으로써, “언어학적으로 정향된 접근법(linguistically oriented approach)”(Casson 1981: 4)을 취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지 자질들(cognitive features)”(Frake 1962: 30) 또는 “정신적 부호들(mental codes)”(Tyler 1969: 6)이 언어에 지도화되기 때문에, 언어는 인지체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고, 특히 명칭체계의 분석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범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에 있는 것들의 이름은 어떤 다른 민족의 환경에서 무엇이



〈지도 1〉 조사지 마을과 곰소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Tyler 1969: 6). 지금까지 민족과학 연구들은 토착 명칭체계에 반영되는 ‘민속구분법’ 연구에 집중해 왔다(Casson 1981: 9, 75-91). 주로 친척, 식물, 동물, 색채, 질병, 신체 부위 등 특정 의미영역(semantic domain)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기후의 어휘체계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sup>2)</sup>

<지도 1>을 보면 조사지 개안촌(가명)은 서해 곰소만의 북안(北岸)

2) 1911년에 Boas가 처음 소개한 에스키모의 눈(snow) 어휘체계(1963: 20)는 언어와 문화,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서 가장 널리 인용된다(Martin 1986: 418). 이것이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어휘 문화의 발달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민족지적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인류학적 사례는 Boas의 원전과 상관없이 그 어휘 수가 과장, 왜곡되어 재생산되어 왔다는 비판이 1980년대에 제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Martin(1986)을 참조할 것.

에 위치한 어촌으로, 행정적으로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속한다. 2009년 현재 38가구에 인구수는 총 91명(남자 44명, 여자 47명)이고 소규모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40~50대 젊은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로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어민들은 1970년대까지 1톤급 풍선(風船)과 주낙을 이용해 조기·갈치·농어·민어·돔·주꾸미 등을 잡았다. 지금은 1~2톤 내외의 선외기선 및 나일론 자망과 소라껍데기 주낙을 이용해 꽃게와 주꾸미를 잡는다. 주된 조업 장소는 곰소만 및 위도 주변 바다다. 연안 어족의 감소로 어민들의 당일치기 조업 범위는 위도를 넘어 먼 바다로 계속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개안촌에서 2008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수행했고, 그 뒤로도 2013년 2월까지 수시로 보충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어민들의 일상생활 및 어로활동을 참여 관찰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제보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지에서는 날씨의 변화나 예측과 관련된 상황에서 특히 바람은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고받는 바람과 관련된 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제보자들의 바람에 대한 인식과 구분의 양상을 일상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본고는 그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토대한다.

## 2.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 1) 바람의 명칭과 범주화

연구지에서도 바람은 기본적으로 방위와의 관계 속에서 지각된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모두 여덟 개로 구분되는데, 바람의 명칭

과 방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누바람 또는 정하누바람: 북풍
- 2 높셋바람: 북동풍
- 3 셋바람 또는 뉘바람: 동풍
- 4 안셋바람 또는 안마: 남동풍
- 5 마파람 또는 정마파람 또는 앞마파람, 앞바람: 남풍
- 6 늦마 또는 늦마파람: 남서풍<sup>3)</sup>
- 7 늦바람 또는 늦: 서풍<sup>4)</sup>
- 8 늦하누 또는 늦하누바람: 북서풍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동서남북 정방(正方)에 대한 지각을 기본으로 간방(間方)을 세분하여 범주화하는 구조다. 그래서 여덟 개의 풍명은 크게 두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정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정방풍(正方風)이고, 다른 하나는 간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간방풍(間方風)이다. 정방풍과 간방풍의 이름을 분석적으로 지시할 때 각각 정방풍명(正方風名)과 간방풍명(間方風名)으로 부르겠다. 따라서 연구지에서는 네 개의 정방풍명과 네 개의 간방풍명으로 구성된 팔방풍명(八方風名)이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은 방위에 따라 구분된 바람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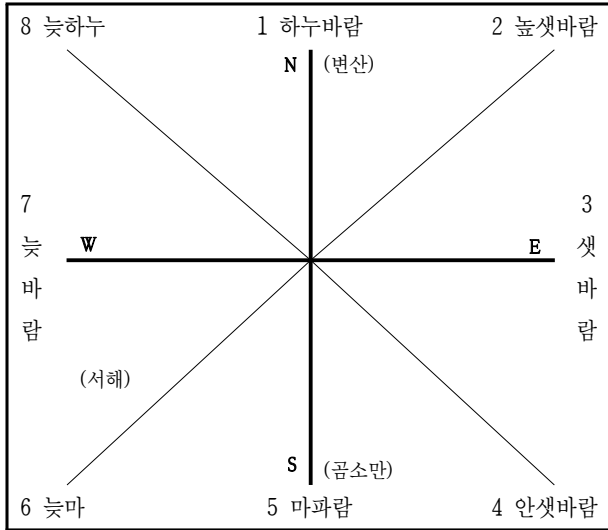
어형 구조를 살펴보면, 풍명은 방위를 지시하는 고유어 명칭에 영역 명칭인 ‘바람’이 결합된 형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방위명과 풍명은 모두 한자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에서 사용되는 풍명은 고유어 명칭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5)</sup> 즉, 연

---

3) 남서풍과 북서풍은 일반적으로는 영역 명칭 ‘바람’이 생략된 ‘늦마’와 ‘늦하누’의 축약형 이름이 기본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 서풍은 정방풍 중에서도 축약형 이름이 유일하게 사용되는 바람인데, 예컨대 제보자들은 서풍이 부는 것을 ‘늦 들온다’거나 ‘늦 걸었다’와 같이 말한다.

5) 방중현(1931, 1939)은 일찍이 방언의 고유어 풍명에 고유어 방위명이 잔존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동서남북의 고어(古語)가 각각 ‘새’, ‘하늬’, ‘마’, ‘뉘’(또는 ‘뒤’)일 것으로 추론했다.



〈그림 1〉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1): 북향 기준

구지에서도 네 개의 정방풍명의 경우, 고유어 방위명으로 추정되는 접두어 ‘하누’, ‘새’, ‘마’, ‘늦’과 ‘바람’이 결합된 구조다. 개별 풍명의 형태적 변이형 중에 동풍과 남풍을 각각 지시하는 ‘넉바람’과 ‘앞바람’은 이 조어규칙에서 벗어난 이름들이다. ‘넉바람’은 그 명칭의 어원이 설명되지 못하나, ‘앞바람’은 마을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설명된다.<sup>6)</sup>

한편 간방풍명은 ‘기본 명칭’인 정방풍명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명칭’으로, ‘6 늦마’와 ‘8 늦하누’는 이러한 조어법의 전형을 보여준다.<sup>7)</sup> 그러나 남동풍과 북동풍은 접두어 ‘안-’과 ‘높-’에 기본 명칭 ‘셋바람’을 결합한 형태다. ‘안마’는 ‘안마과람’의 축약형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명칭의 어원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북풍이 ‘고풍(高風)’으로도 지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접두어 ‘높-’은 북쪽을 지시하는 의미일 것

6) 동풍은 매우 차가운 바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넉바람’은 이 차가운 성질을 지시하는 한자어 ‘냉(冷)’이 결합된 ‘냉(冷)바람’의 전음(轉音)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7) ‘기본 명칭’과 ‘합성 명칭’의 용어는 왕한석(2012a: 57)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이고 결국 ‘높새바람’은 ‘하누바람’과 ‘새바람’의 합성 명칭으로 볼 수 있다.

- 2 안새바람 또는 안마: 안- + 새바람 또는 안- + 마파람
- 4 늦마(파람): 늦바람 + 마파람
- 6 늦하누(바람): 늦바람 + 하누바람
- 8 높새바람: 높- + 새바람

남북을 축으로 놓고 보면, 북-동-남의 방위에 걸쳐 있는 간방풍에는 ‘새바람’이, 북-서-남의 간방풍에는 ‘늦바람’이 공통 어휘소(lexeme)임이 눈에 띈다. 전자는 ‘새바람’이 풍명의 뒤에 결합되고 후자는 ‘늦바람’이 앞에 결합된 점에서 다르다. 간방풍명의 형태는 다소간 각 바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연구지에서는 바람이 차갑고 따뜻한 성질로 구분된다. 이때 ‘새바람’은 찬바람에, ‘늦바람’은 따뜻한 바람에 속한다. 따라서 간방풍명에 ‘새바람’과 ‘늦바람’이 결합된 것은, ‘2 안새바람’과 ‘8 높새바람’ 그리고 ‘4 늦마’와 ‘6 늦하누’가 지닌 바람의 기후적 특성을 함축한다. 즉, 남북을 축으로 동쪽의 경우 북동풍과 남동풍이 모두 ‘새바람’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차가운 바람이고, 반면에 서쪽의 경우 남서풍과 북서풍이 ‘늦바람’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따뜻한 바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지에서 파악된 팔방풍명을 이승녕(1967: 303)의 연구와 비교해 보려고 한다. 일찍이 부안군 해안지방을 조사한 이승녕은 11개의 풍명을 보고했다. 북동남서의 순서로 열거하면, ‘하누바람’, ‘높하누’, ‘새바람’, ‘안마’, ‘샘마’, ‘골마’, ‘마파람’, ‘늦마’, ‘늦갈’, ‘늦바람’, ‘늦하누’가 그것이다. 본 연구지보다 세 개의 명칭이 더 많다. 남동 간방풍인 ‘샘마’와 ‘골마’, 그리고 남서 간방풍인 ‘늦갈’이 그것이다. 게다가 남동 간방풍은 ‘안마’를 포함해 모두 세 개로 세분된다. 본 연구지에서는 남동 간방풍이 ‘안새바람’ 하나로만 지각되며, 사실 이 바람은 다른



바람들에 비해 그리 중요하게 인식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승녕이 조사한 ‘부안군 해안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같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세분화 양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내만 연안 어촌인 본 연구지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한 어촌지역일 것으로 짐작된다.

끝으로 풍명의 어휘 분화에 대한 연구들(홍순탁 1963: 82-86; 이승녕 1967: 302-304; 장태진 1968; 왕한석 1994: 607-612, 2009a: 34-38, 2009b: 131-133, 2010a: 38-44, 2010b: 224-226, 2012a: 51-59, 2012b: 341-342)을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몇 가지 일반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보다 어촌지역에서 풍명의 구분이 매우 발달하였다.<sup>8)</sup> 어촌에서는 대체적으로 팔방위를 기본으로 최소 8개, 많게는 14개의 풍명이 구분된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한자어 계열의 풍명이, 어촌 지역에서는 고유어 계열의 풍명이 주로 사용된다. 셋째, 농촌지역에서는 사방위를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서 정방풍 또는 간방풍 중심의 바람 구분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어촌지역에서는 팔방위와 정방풍을 기본으로 바람이 지각된다. 즉, 어촌지역에서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체계가 발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미발달했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넘어서, 바람의 구분이 팔방위를 기본으로 정밀하게 세분되고 고유어 풍명이 발달한 어촌지역의 바람 관련 지식체계는, 사방위를 기본으로 하고 한자어 풍명이 중심이 되는 농촌지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어촌 사회들 간에도 지역적 변이가 발견되는데, 연안 어촌보다는 도서 어촌에서 풍명이 훨씬 더 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아마도 도서지역이 육지의 연안지역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8) 일찍이 인접한 농촌과 어촌에서의 풍명의 분화 양상을 경험적으로 비교한 왕한석(1994: 607-612)은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라 농촌보다 어촌지역에서 바람이 더 세분됨을 일반화하였다.

많이 받는, 그래서 바람에 더 민감한 생태환경에 놓여 있음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 팔방풍명이 나타나는 바람의 구분법은 농촌에 비해서는 정교하게 발달하였으나, 어촌으로서는 기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2) 남향 중심의 관점과 바람의 인지지도

연구지에서 풍명은 방위에 따라 바람을 구분하는 것 이상의 공간 지각의 관점을 내포한다. 예컨대 ‘마파람’은 ‘앞마파람’ 또는 ‘앞바람’으로도 지시된다. ‘마파람’은 “마을 앞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하누바람’은 “마을 뒤쪽에서 부는 바람” 또는 마을 뒷산인 “뒷재를 넘어오는 바람”으로 설명된다. 즉, 연구지에서 방향 관련 공간 지각은 남북을 축으로 산이 있는 북쪽을 등지고 바다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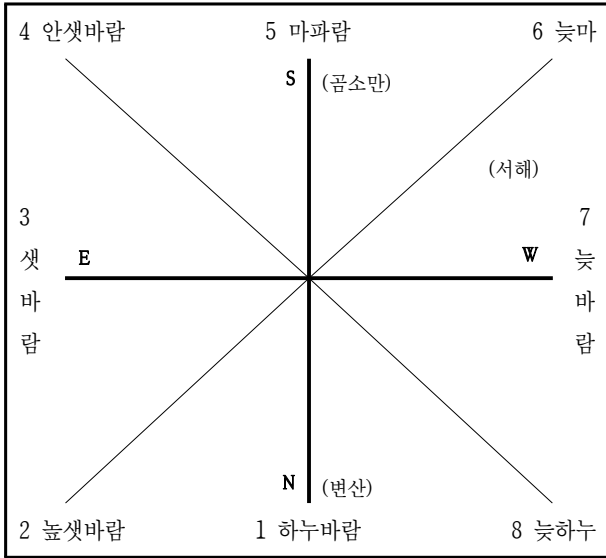
이 남향(南向) 중심의 관점이 바람을 지각할 때도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북쪽을 위쪽으로 설정한 앞의 <그림 1>은 연구지 어민들의 바람에 대한 인지지도를 온전히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남쪽을 위쪽으로 설정한 바람의 구분 도식이 오히려 내부자적(emic) 관점에 일치하는 바람의 인지지도일 것이다.<sup>9)</sup>

연구지에서의 남향 중심의 공간 지각은 마을의 입지 조건 및 생업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을이 산악지대인 북쪽을 뒤로 하고 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열려 있는 데다, 어로활동을 하는 중요한 바다가 남쪽(정확히는 남쪽과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 볼 것이 좌동우서(左東右西)의 방위 개념으

---

9) 남향 중심의 관점은 바람 이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관찰되었다. 사방을 표시한 종이를 놓고 바람을 설명할 때 제보자들은 종이의 위쪽을 남쪽으로 설정했다. 한 제보자는 종이라는 평면 위의 방위를 인터뷰하던 방의 방위 및 자신의 인지지도상의 방위와 일치시키기까지 했다(조숙정 2014: 171 참조).



〈그림 2〉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2): 남향 기준

로 공간을 구분하는 한국의 전통적 관점이 남향 중심이라는 점이다.<sup>10)</sup> 즉, 연구지에서 바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남향 중심의 관점이 생업 터전인 바다가 남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의 입지 조건 및 어로공간 때문에 발달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뿐인지, 아니면 한국의 전통적인 방위 개념과도 관련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촌 마을인 연구지와 완전히 다른 생태환경과 생업에 놓여 있는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도 지도를 볼 때 남쪽을 위쪽으로 보는 공간 지각이 발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조숙정 2014: 171-172). 또한 그 마을에서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남쪽에 위치한 산을 마을의 ‘앞산’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마을이 동쪽이나 북쪽 등 다른 방위로 열려 있는 어촌에서는 공간 지각과 바람의 구분법이

10) 조선시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최세진 1527)에는 南을 ‘앞 남’, 北을 ‘뒤 북’으로 설명한다(방종현 1939: 14). 이것은 적어도 16세기 초에 이미 남북이 앞뒤와 뜻이 같은 말로 사용되었음과 함께 좌동우서의 방위 개념을 보여준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 지리적 조건이 다른 어촌들의 바람 인식 및 공간 지각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와 경험적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3) 체화된 바람과 방위의 구분

바람의 민속구분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한 제보자들의 놀라운 감각적 반응이었다.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이 바람은 ○○다.” 또는 “이 바람이 불면, △△다.”라는 식의 관용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구체적인 풍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로 “이 바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① “아~조 젤 추운 놈의 바람이여. 이 바람 불면 강... 오늘도 시방 현재까지 계속 이 바람 부노만 지금.”(김○풍, 남, 1943)<sup>11)</sup>

② ‘이 바람이 자려면 비가 와야 한다.’(배○식, 남, 1957)

〈사례 1〉의 ‘이 바람’은 ①에서는 ‘셋바람’을, ②에서는 ‘마파람’을 뜻한다. 이것은 제보자들이 각 바람의 기후적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체화된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로 마을 모퉁 옆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펄럭이는 방향을 보고 시각적으로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방파제 끄트리만 가봐도 알아 그냥. 거 가만 다치면 이 바람이 부는가 이 바람이 부는가 알아.”(김○풍, 남, 1943)라는 한 제보자의 말은 바람의 방향을 촉각 정보에 의지해 거의 무의식적

11) 참고로 이 글에서 사례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제보자들의 정보 중 연도 표기는 출생 연도를 의미한다.

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연구지 사람들은 바람의 종류를 언어적·인지적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촉각 정보를 이용해 풍향과 바람의 속성을 구별하는 감각 능력을 또한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지에서 풍명의 범주화가 바람 자체에 대한 구분을 넘어 방위를 구분하는 지각의 발달을 보여준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어촌 사회에서의 바람과 방위의 관계를 명료히 표현한 왕한석(2009a: 37)의 글을 빌리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바람의 구분은 그것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 사람들이 방위의 구분에 대한 지각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3.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 1) 계절별 바람의 분포

한 계절에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뒤섞여 불기는 하지만, 특정 계절에 주로 부는 바람이 구분되며 그 기후적 특성도 다르게 설명된다.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개별 바람의 계절적·기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누바람:** 가을과 겨울에 주로 부는 바람. 겨울에 북쪽에서 부는 하누바람은 매우 차다. 여름에 하누바람이 불면 비가 오지 않는다. 가을에 이 바람이 불면 날씨도 좋고 바다에서 일하기도 좋다.
- 2 **높새바람:** 겨울에 많이 부는 찬바람
- 3 **셋바람:** 겨울과 봄에 주로 부는 바람. 한대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바람이 차다. 겨울에 부는 셋바람은 하누바람보다도 더 차가운 바람이다. 겨울철 이전에 특히 많이 분다. 여름에는 드물게 부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비 오고 날이 갠 때 한 번씩 분다.

- 4 안새바람: 봄에 부는 바람
- 5 마파람: 봄과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불어와 바람이 따뜻하다. 마파람은 비 오고 날 갠 때 주로 분다. 여름에 마파람이 불면 비가 많이 온다. 마파람은 불다가도 해가 지면 자는 바람이다.
- 6 늦마: 여름에 많이 부는 바람. 비 오는 철에 늦마가 불면 비가 많이 온다. 여름에 오전 열시나 열한시 무렵이면 아침 내 바람이 없다가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 7 늦바람: 봄부터 가을까지 통상적으로 부는 바람. 따뜻한 계절에 가늘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가을이 깊어져 날이 차지면 늦바람도 세어진다.
- 8 늦하누: 가을과 겨울에 부는 바람. 가을에는 선선하지만 겨울에는 찬바람이다.

계절별 바람의 구분은 사계절의 변화와 그 궤를 대략 같이한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누바람’은 겨울에 주로 부는 바람이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은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으로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춘하추동의 변화 속에 ‘새바람’, ‘마파람’, ‘늦바람’, ‘하누바람’이 순서대로 분포하는 형상이다. 각 바람은 대개 분포하는 계절이 복수로 진술되는데, 인접한 계절 사이에서 중첩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즉, ‘새바람’은 겨울과 봄에, ‘마파람’은 봄과 여름에, ‘늦바람’은 봄과 여름 및 가을에, 그리고 ‘하누바람’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분다. 간방풍의 경우 ‘늦새바람’은 겨울에, ‘안새바람’은 봄에, ‘늦마’는 여름에, 그리고 ‘늦하누’는 가을과 겨울에 주로 분다. 겨울을 제외하고 부는 ‘늦바람’이 연구지에서는 가장 통상적으로 부는 바람이고, 사계절 중 가을철에 바람이 가장 흔하게 분다고 한다. <표 1>은

〈표 1〉 계절별 바람의 분포

계절	정방풍	간방풍
봄	새바람, 마파람, 늦바람	안새바람
여름	마파람, 늦바람	늦마
가을	늦바람, 하누바람	늦하누
겨울	하누바람, 새바람	늦하누, 늦새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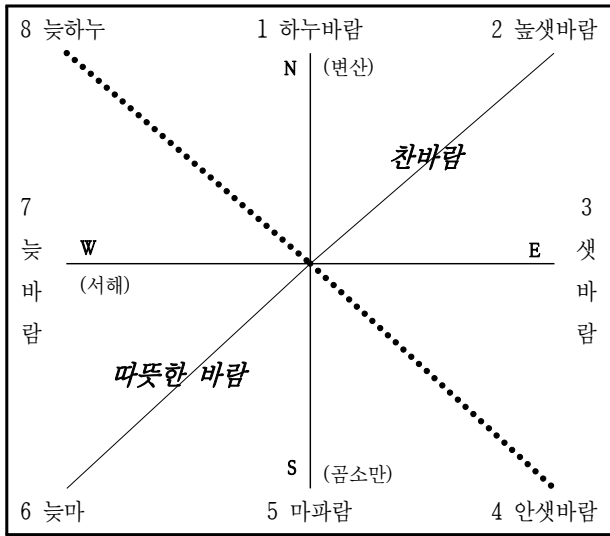
계절별 바람의 분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계절과 바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보자들은 주로 정방풍을 중심으로 진술했다. 간방풍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적었고, 특히 ‘높새바람’과 ‘안새바람’에 대한 진술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바람별 인지도는 방위에 따른 풍명의 인지도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풍명을 설명할 때 제보자들 중 일부가 즉시 기억해내지 못하는 바람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높새바람’ 또는 ‘안새바람’이었다. 이 두 바람은 남북을 축으로 모두 동쪽에서 부는 간방풍이라는 분포상의 공통점을 지닌다. 이 두 바람은 어민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시 말해, 간방풍보다는 정방풍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팔방풍의 구분에서 북동풍과 남동풍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팔방풍의 명명과 범주화가 정방풍명을 기본 명칭으로 하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정방을 중심으로 방위 지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쪽 간방풍보다 서쪽 간방풍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화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것은 연구지의 지리적 특성과 어로 환경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만입한 곰소만의 특성상 연구지에서 주된 어로공간은 서쪽 바다에 위치한다. 따라서 바다가 있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어민들의 관심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 2) 기온과 바람의 관계

우선 계절별 바람의 기후적 특성은 차고 따뜻한 성질로 규정되고 구분된다. 겨울과 (이른) 봄에 주로 부는 바람은 ‘찬바람’으로, (늦은) 봄과 여름 및 가을에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으로 구분된다. 풍명으로 바꿔 말하면, ‘하늬바람’과 ‘새바람’은 찬바람이고, ‘마파람’과 ‘늦바



〈그림 3〉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의 구분

람'은 따뜻한 바람이다. 특히 겨울에 부는 '새바람'은 '하누바람'보다 더 차가운 바람으로 인식되는데, "겨울에 새바람 불면 갯물도 언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그리고 간방풍의 경우, '하누바람'과 '새바람' 사이에서 부는 '늦새바람'은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고, '마파람'과 '늦바람' 사이에서 부는 '늦마'는 여름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다. 이와 달리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사이에서 부는 '안새바람'과 '늦하누'는 각각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놓여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이중적 속성이 공존하는 바람들이다.

따라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구분은 북서풍과 남동풍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연구지에서는 '8 늦하누'와 '4 안새바람'을 축으로 북쪽과 동쪽은 '하누바람'과 '새바람'을 중심으로 겨울과 봄에 찬바람이 부는 영역이고, 남쪽과 서쪽은 '마파람'과 '늦바람'을 중심으로 여름과 가을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바람의 차고 따뜻한 성질은 그것이 불어오는 기원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겨울에 주로 부는 찬바람은 북쪽의 한대지방에서 불어오고, 여름에 주로 부는 따뜻한 바람은 남쪽의 온대지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이다. 결국 계절에 따라 바람의 차고 따뜻한 속성의 구분은 연구지가 계절풍이 부는 온대기후대에 속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언어 사용 및 인지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3) 비와 바람의 관계

계절별 바람의 또 다른 기후적 특성은 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비와 바람은 날씨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주된 기상 조건이고, 특히 비가 바람을 동반한 곳은 날씨는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 및 조업의 가불가(可不可)와 직결된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어민들이 강조하는 기상 조건은 비보다는 바람이다.

#### <사례 2>

- ① ‘바람 불면 (바다) 못 나간다. 바람 불면 우리는 일요일이다.’(배○식, 남, 1957)
- ② ‘바람만 불지 않으면 웬만한 비에도 작업을 나간다.’(전○봉, 남, 1957)
- ③ “조금때 (어장) 안 하고, 바람 불고 날씨 안 좋으면 안 하고.”(김○풍, 남, 1943)

<사례 2>는 조업과 날씨의 관계에서 바람이 비보다 더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③의 제보자는 어촌에서 물때와 바람이 조업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환경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오늘날 어민들은 방송을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기예보를 듣

고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 또는 날씨가 이상하다 싶으면 기상청에서 전화로 제공하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그러나 <사례 3>에서처럼 일기예보가 지금처럼 제공되기 전에는 산에 낀 연무나 하늘에 구름이 낀 상태 등 자연의 변화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날씨의 굵고 좋음을 예측했었다.

〈사례 3〉

“근게 일기예보가 그전이는 없었잖아. 없었는디, ‘아, 이것이 비가 오겠다, 바람이 불겠다’ 대략 짐작을 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그리고 하늘 구름 보고 날씨가 이상하지. 좀 틀리지. 틀린게 그 경험으로 하는 거여 인자. 근게 산이[산에] 가서 무슨 이상현 연무 현상이 찌다든가 뿔한다든가. 그러면 틀림없이 사흘 안에 바람이 불어. (@연무가 끼면?) 연무 같이 그렇게 끼는, 중간 어떻게. 전체가 끼잖이(끼는 것이 아니고). 산, 저 화전[하천] 높은 산 있잖아. 그런데 가서 연무가 끼고 허면 ‘아, 사흘 안에 날 굵겼구나’ 그것을 알지. …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 (@그러면 바다 나가기 힘든 거예요? 어장 하러?) 나가기 힘들지. 그전이는 그런게로 모리고 나갔다가 느닷없이 바람이 터져 갖고는 사람도 많이 죽고 실패도 보는디. 지금은 일기예보가 있은게. 안 나가 버려 강. 안 나가 버린게 괜찮혀지. … 산에 연무가, 꼭 거그만 껴. 탄 데는 안 끼고 그런 거 보고 하늘 구름 보고. 날씨가 이상혀서, 바다에서 시킵허니 구름이 찌 가지고 올라온다던가 그런, 바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알지).”(김오옥, 남, 1934)

또는 ‘갈매기가 유난히 낮게 날면서 짹 짹 대고 울면 비가 온다.’거나 ‘바람에 나뭇잎이 뒤집히면 비가 온다.’, ‘바람이 바닷물을 뒤집어 거품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 등 비가 올 징후를 예측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인식도 나타난다. 바깥 활동을 제약하는 비는 대개 바람을 동반하므로 비와 바람은 밀접한 관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오늘날 일기예보의 발달로 자연의 변화를 직접 관찰해서 비바람을 예측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바람을 지각하고 구분해야 할 중요성도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와 관련되어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바람은 ‘마파람’과 ‘하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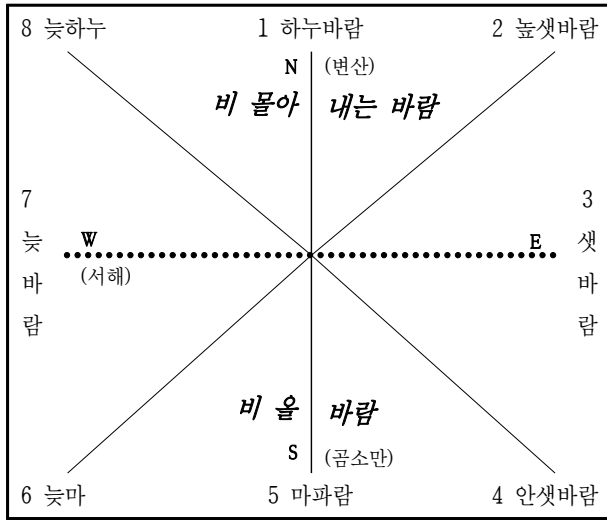
이다. <사례 4>는 이 두 바람이 비와 관련해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례 4〉

- ① “비가 와야 이 바람이 잘 텐디.”(박○님, 여, 1931)
- ② “어마, 비 온다더니 비 몰아내는 바람 부네.”(조○옥, 여, 1935)

<사례 4>의 ①에서 비가 와야만 멈출 바람은 ‘마파람’이고, ②에서 비를 몰아내는 바람은 ‘하누바람’이다. ‘마파람’은 특히 여름에 비가 오려고 날이 갠 때 주로 부는 바람이고, 이와 달리 ‘하누바람’은 겨울에 눈보라를 몰고 올 수는 있으나, 여름에는 대개 날씨가 좋을 때 부는 바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마파람’이 불다가 ‘하누바람’이 불면 북풍이 비 올 바람인 남풍을 몰아내는 형국이 된다. ‘마파람’이 며칠씩 연속 부는 것을 ‘마탈났다’라고 하는데, ‘마탈난’ 것이 가려면 비가 오든지 ‘하누바람’이 불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에서는 ‘마파람’을 “비 올 바람” 또는 “비 오는 바람”이라고 하고, ‘하누바람’을 “비 몰아내는 바람” 또는 “비 그치게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한편 ‘셋바람’과 ‘늦바람’은 대체로 비를 형성하지 않는 바람으로 인식된다. 간방풍 중에서는 ‘늦마’가 대표적으로 비와 관련된 바람이다.

다시 말해, 바람들은 비와 관련성이 적은 ‘늦바람’과 ‘셋바람’이 부는 동서를 축으로 ‘비 올 바람’과 ‘비 몰아내는 바람’으로 구분된다. <그림 4>를 보면, ‘마파람’을 중심으로 한 남쪽 바람은 비가 오는 바람의 영역이고, ‘하누바람’을 중심으로 한 북쪽 바람은 비가 오지 않는 바람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마파람’과 ‘늦마’가 대표적인 비 올 바람인데, 이 두 바람이 여름 바람이라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쪽은 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영역이고, 여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비가 많고 특히 6월(음력 5월)부터 한 달 정도 장마철이



〈그림 4〉 비 올 바람과 비 몰아내는 바람의 구분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비와 바람의 관계와 달리 눈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강조는 연구지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연구지역은 “비는 변산에 오면 빨리 가자 하고, 눈은 쉬어 가자 한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는 적게 오고 눈은 많이 오는 곳이다. 그런데도 눈과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비와 바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여름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계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어촌에서 겨울은 휴어기에 해당하고, 여름(정확히는 봄부터 가을까지)은 어로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따뜻한 계절의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정향은 어로활동이 가능한 시기의 기상현상에 대해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4. 어로활동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

### 1) 파도와 바람의 관계

‘바람 불면 파도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람과 파도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된다. 바람은 바다의 상태 곧 물결의 잔잔한 정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바람이 분다는 것은 파도가 얼마나 굵고 거센가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조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거나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바람에 쫓겨 왔다.’는 것은 모두 정확히 말하면 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 때문이다.

먼저 파도의 명칭 및 구분법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연구지에서는 파도를 ‘뉘’라고 부른다.

- 1 갈뉘: 바람도 안 부는데 오는 파도. 수심이 얇은 해안가로 들어오면서 하얗게 까지는 파도
- 2 머리 풀고 오는 뉘: 바람이 세게 불 때 오는 큰 파도. 파도가 높게 서서 온다.
  - 2.1 머리 풀고 오는 뉘: 파도가 서서 하얗게 까져서 등글면서 오는 큰 파도
  - 2.2 삼형제 오는 뉘: ‘머리 푼 뉘’이 연거푸 세 개가 엮여서 오는 파도
- 3 울렁파도 또는 너울파도: 일정하게 울렁울렁 치는 파도.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치는 파도
- 4 삼각파도: 물속 여 있는 곳에서 부딪친 조류가 역풍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파도

‘파도’라고 하면 어민들은 ‘갈뉘’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수심이 얇은 가에 와서 흐거니 까지는(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이므로, 연안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파도이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갈뉘’는

---

12) 그래서 ‘갈뉘’는 ‘갓뉘’의 전음(轉音)일 것으로 짐작된다.

바람이 없는데도 높게 치는 파도인 접이 강조되고, 바람이 불 징조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갈뉘’가 오면 이삼일 뒤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는 ‘갈뉘’가 오는 것을 보고 며칠 뒤에 바람 불고 날이 궂을 것을 예측했다.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불 때 치는 굵은 파도는 어휘적 명칭의 분화 없이 ‘머리 풀고 오는 놈’ 또는 ‘머리 푼 놈’으로 표현된다. 이것도 수심이 얇은 데서 치는 파도다. 큰 파도가 높이 서서 “흐거니 까져서 둥글서”(하얗게 부서져서 둥글어) 오는 위험한 파도다. 한 제보자는 “여자가 머리 풀고 싸남내고[사납게] 달려들면 무섭잖아.”(김○일, 남, 1962)라며, 왜 이 파도가 ‘머리 풀고 오는 놈’으로 비유되는 무서운 파도인지를 설명했다. 바다에서 이 ‘머리 푼 놈’을 만나면 선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뱃머리를 파도 쪽으로 해야 “파도하고 배하고 같이 놀아”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배 옆으로 이 파도를 맞으면 배에 물이 차거나 배가 전복될 수 있다. ‘바다에서 이런 뉘를 만나면 죽냐 사냐 하기 때문에 추운 때도 온몸에 땀이 난다.’(전○수, 남, 1937)고 한다. 이 ‘머리 푼 놈’이 세 개 연거푸 오는 것을 ‘삼형제 오는 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다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파도다.

수심이 깊은 바다 쪽에서 치는 ‘울렁파도’ 또는 ‘너울파도’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지 않고 일정하게 울렁울렁 치면서 천천히 오는 파도다. 한 제보자는 깊은 바다에서 오는 이 ‘울렁파도’가 수심이 얇은 가로 들어와서 ‘갈뉘’가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강○고, 남, 1953).

‘삼각파도’는 물속에 여가 있는 곳에서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일어나는 파도다. 따라서 파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서 ‘삼각파도’를 만나면 위험하다.

한편 연구지에서는 ‘뉘’와 함께 ‘노대’라는 말도 사용된다. 제보자들은 ‘뉘’와 ‘노대’가 모두 파도를 가리키는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도의 이름이나 특성을 설명할 때는 ‘뉘’로만 언급하고, 파도가 배나

섬, 바위, 바닷가에 부딪치는 것을 가리켜서는 ‘노대 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노대’는 어딘가에 부딪치는 ‘늬’를 구별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제보자들은 파도의 특징을 바람 및 수심과의 관계에서 주로 설명했는데, ‘갈늬’와 ‘머리 풀고 오는 놈’과 같이 상대적으로 연안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서해가 상대적으로 수심이 얇은 바다이고 특히 연구지 어민들이 연안 가까운 바다에서 주로 조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갈늬’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갈늬’가 바람 없이 오는 특이한 파도로서 바람을 예측할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도와 바람의 관계는 바다의 구역 및 계절의 측면에서 구분되어 인지된다. 첫째, 바다의 구역에 따라서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는 차이가 있다. 같은 세기의 바람일지라도 ‘개안’ 곧 만내(灣內)에서보다는 ‘바닥’ 곧 만 밖의 바다에서 훨씬 굵은 파도를 일으킨다. 그래서 때때로 만내에서는 바람이 없거나 약해서 조업을 나갔는데 위도 앞바다에서는 산티미 같은 굵은 파도가 쳐서 조업 나갔던 배들이 그냥 쫓겨 오기도 한다. 특히 바다에서는 ‘마파람’보다 ‘하누바람’이 더 굵고 거센 파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지형상 ‘셋바람’은 만내에서 치는 파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 어장이 있는 외죽도·미여도 등 곰소만의 서부 바다에 파도가 칠 때면 조업을 나갈 수 있도록 ‘셋바람’이 불어 파도를 쓸어버리기를 바라게 된다. 둘째, 계절에 따라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도 차이가 있다.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그치면 파도도 따라서 바로 죽는다. 이와 달리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그쳐도 파도는 여전히 거세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바람이 그치면 다음날 바로 바다에 나갈 수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이 그쳐도 하루 정도는 바다에 나갈 수 없다.

한편 태풍과 돌풍은 방위와는 상관없이 부는 또 다른 범주의 바람

구분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바람의 종류다. 태풍은 주로 여름에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고, 돌풍은 주로 가을과 겨울에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다. 즉, 전자는 따뜻한 계절에 부는 바람이고, 후자는 추운 계절에 분다. 계절은 다르지만, 두 바람은 모두 일상적이지 않은 바람으로서 바다에서의 조업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위험한 바람들이다. 특히 돌풍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 잔잔하던 바다에 느닷없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가을에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꽃게잡이 어민들은 추석 대목을 본 후에는 대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조업을 더 하고 10월 상순이나 중순쯤에는 서둘러 어장을 끝낸다. 그러나 태풍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고기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 2) 물때와 바람의 관계

바람과 함께 물때는 어로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물때와 바람도 상호 관계 속에서 구분되고 인지된다. 어민들은 물때 따라 바람의 특성이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첫째, 밀물 시에 바람이 더 많이 분다. 어민의 표현을 빌면, ‘물이 쪼다 드는 물에는 바람이 부는 것이다.’(배○열, 남, 1948).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 밀물 때 바람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 〈사례 5〉

“바닥(갯벌)이가 있으면 씨르른이 바람기가 추와, 사람도. 그러면 벌써 들 물기 허는 거여. 소화지 허는 거여. 우리 바닥으 가서 반지락을 파른 벌써 알어. 왜 아나쁜 바람이 쓸혀(서늘해). 그림 아, 들물기 허네. … 추와. 춘 바람이 들와. 들물기 헐라면 (찬바람이) 들와. 그러면 우리도 알어. 물 안 보고도 알어. 우리는 … 바닥으로 수 년 땡긴게 다 알아 버려.”(박○님, 여, 1931)



오랫동안 조개채취를 해온 <사례 5>의 제보자는 바람에 대한 감각이 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개를 파다가 오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바람만으로도 물때가 밀물 때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오후 밀물 때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과수원을 검업하는 한 어민은 물때를 보고 풍향을 고려해 나무에 약을 친다고 한다(강○고, 남, 1953).

둘째, 물때에 따라 물의 수위 및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영향이 달라진다. 물이 적게 들어오는 ‘조금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의 수위가 예상외로 높아진다. 그리고 물 힘이 약한 ‘조금때’보다는 물 힘이 센 ‘사리때’에 바람이 더 많이 분다. 그래서 ‘조금때’보다 ‘사리때’에 어민들은 바람에 더 예민해진다.

#### <사례 6>

“이 바람이 그날에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부냐 허는 차이에서 엉뚱하니 (물이) 들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 없어. … 여그가 사리에 간조의 표준이 여그고 조금의 간조의 표시가 여기였는데, 그런게 여그 사람들도 우리도 어, 오늘 이거 이상네. 물이 여그 들와야 정상인데. 여그 올라 버렸단 말여. 그먼 그 원인이 여그는 바람이 안 불어도 동해안에서 동남풍이나 되게 태풍이 광주 쪽에서 불었을 때는 요리 치밀어 버리는 거여, 물을. 바람이. … 근게 바람이 태풍이 예를 들어서 올라와도, 조금에 올라와 버리면 물이 \*\*\* 때 올라와 버리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근디 사리때 물이 췌게 돌 적으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허면은 엉뚱하니 밀어 버린게. 해일도 일어나고 허는 원인도 그거여. 그런데 대략 바람이 일어나면 물이 췌 찍으 이 사리때 많이 불지. 근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여. 조금때는 바람이 약간 불어도 파도가 안 일어나.”(김○만, 남, 1937)

만간조(滿干潮) 물때와 풍향이 만나는 관계에 따라 바람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다. 태풍 ‘덴무’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직후인 2010년 8월 12일 밤부터 심한 뇌성벽력을 동반한 폭우가

왔다. 8월 13일(음 7. 4. 열물) 새벽 4시 무렵 바닷물은 방파제를 넘어 육지까지 넘실거렸다. 어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모여 어선의 안전을 걱정하며 바다와 바람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폭우와 강풍이 새벽 만조 시간과 겹쳐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어선 한 대도 파손되는 일 없이 새벽 만조 시간을 잘 넘겼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마을 이장은 연구자에게 ‘이 바람(하누바람)이라 다행이지, 마파람 불었으면 배 몇 개는 작살났을 것이다.’(강○고, 남, 1953)라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날 새벽은 물때가 열물로 ‘사리때’여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였다. 게다가 새벽 만조가 되는 때에 폭우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더 거세지고 물의 수위가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제 문제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파람’이 아니라 ‘하누바람’이 불어 다행이었다는 것이다.

연구지에서는 ‘마파람’을 “동네가 시끄러운 바람”이라고도 한다. 연구지는 남쪽인 마을 앞이 바다로 열려 있고, 방파제가 대략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래서 동풍이나 서풍이 불면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어 괜찮지만, 남풍이 불면 파도를 막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마파람’이 불면 파도가 더 크게 올라와서 배들이 서로 부딪쳐서 동네가 시끄럽고 파손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더욱이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사리와 만조 때 폭우가 오고 강한 남풍이 불면 물의 수위를 더 끌어올려 파도를 더 거세게 하는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와 만조, 폭우가 온 상황에서 ‘마파람’이 불면 배가 파손될 위험이 더 커지지만, 반대로 ‘하누바람’이 불면 물의 수위를 낮추고 파도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태풍 뒤 폭우가 내리던 날 새벽에 어민들이 보여준 그 현장의 긴박감과 긴장감은 비와 바람, 물때의 관계에 대한 지역지식의 이해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 3) 풍선과 바람의 관계

연구지에 동력선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풍선이 이용되었다. 과거 풍선을 타고 조업할 때는 바람이 어선 운항에 필요한, 자연이 제공하는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바람이 풍선 운항에 동력원이 되고 좋은 것은 아니었다. 풍선 운항과 바람 종류의 관계에 대한 제보자들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7〉

① “위도? 갔다 오지 하루에. 어떻게든 오지. 가령 아침이 썰물에 간다고 봐. 그땐 저녁 때 들물이 있잖아. 그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오지. 그러자 인자 그 늦마파람이나 고런 놈 만나노면 강 가만히 앉어서도 오고. 돛 달어 놓고 기양 그래도 쉬어 와 버리고. 또 인자 위도 갈라면 아침에 여그서 셋바람 같은 거 나오면 양 가만히 앉아서 가고. 바람 맞으면 편하고. 바람이 몰짜면(나쁜면) 고생히고 그려. 풍선은.”(김○풍, 남, 1943)

② “(풍덩이배로 젓거리 잡는 배는) 전부 풍선여. 그때가 괴기 많이 났지. 나중으 인자 범성 육젓이라고 또 났잖여? 그것 힘서 인자 큰 배에다가 (기계틀) 하나씩 놓기 시작했지. 근디 그 별 효력이 없었어 그거는. 하누바람 불면은 쪼끔 차이 나는데. 여그서 돛 달으면 두 개 달면 범성 앞에 금방 가버리는디 뭐. 기계배가 그제 벨 효력이 없었어.”(김○만, 남, 1937)

풍선을 운항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물때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 규칙적으로 ‘들고 쓰는’ 물때와 달리, 바람은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로 불어줄지 알 수 없는 가변적인 요소다. 그래서 물때에 맞춰 풍선을 운항할 때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좋은 것이다.

연구지와 바다의 지리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 외죽도나 위도와 같은 주 어장들이 마을의 서쪽 바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고평만에서는 바닷물이 썰물일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대로 밀물일 때는 서쪽에서

〈표 2〉 풍선 시절 어장의 위치와 선호되는 물때-바람의 관계

어장 \ 항목	물때	선호되는 바람
곰소만	썰물	셋바람
	밀물	늦바람
서해	썰물	하누바람
	밀물	마파람

동쪽으로 흐른다. 곰소만을 벗어난 먼 바다에서는 조류가 썰물일 때는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물일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썰물과 ‘셋바람’이 만나면 제일 좋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밀물과 ‘늦바람’을 만나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전남 법성포 앞바다로 고기잡이를 갈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썰물에 ‘하누바람’이 불어주면 가장 좋은 것이다. 반대로 어장을 마치고 곰소만으로 올라올 때는 밀물에 ‘마파람’이 불어주면 편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호되는 물때와 바람의 관계가 어장의 위치 및 어선의 운항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고 이용된 것이다. <표 2>는 풍선 시절 어장 위치와 선호되는 물때 및 바람의 관계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4) 어로활동의 호불호와 바람의 관계

바람은 어로활동의 호불호(好不好) 또는 가불가의 관계에 따라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으로 구분되어 인지된다. 개별 바람에 대한 좋고 나쁨을 설명하는 제보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누바람: 가을에 부는 하누바람은 사람도 고실고실하고 모든 고기가 많고

날씨도 좋은 바람이다. 그러나 겨울에 불면 바람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깊은 바다로 빠져나가 안 잡힌다.

- 2 **높새바람:** 높새바람이 불면 고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나쁜 바람이다.
- 3 **셋바람:** 셋바람이 불면 고기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제일 나쁜 바람이다. 개안에서 부는 셋바람은 파도도 없이 물만 말갱게 하고 고기를 나가게 한다.
- 4 **안셋바람:** (특별한 설명 없음)
- 5 **마파람:** 마파람이 살살 불어주면 고기도 많이 나고 젓새우도 많이 난다. 하지만 여름에는 비가 오고 날이 꺾을 때 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조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나쁜 바람이기도 하다.
- 6 **늦마:** 여름에 늦마가 불면 파도도 없이 시원해서 바다에서 일하기 좋다. 그러나 비오는 철에 불면 대개 비가 오기 때문에 어로활동을 할 수 없다.
- 7 **늦바람:**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고기들이 활동하기에 좋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시원해서 바다에서 일하기도 좋은 바람이다. 봄과 여름에 고기를 연안으로 몰아주는 바람이다.
- 8 **늦하누:** 늦하누가 불면 고기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장 하기가 좋은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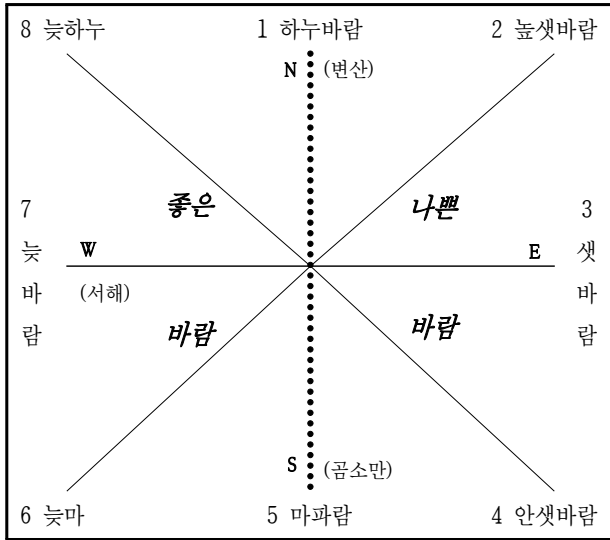
바람의 좋고 나쁨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은 결국 개별 바람이 고기의 상태 및 바다에서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어획량 및 조업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과 바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어획량의 측면에서 보면, 어민들에게 좋은 바람은 바다에 고기의 양을 많게 하고 움직임은 활발하게 함으로써 어획량을 많게 하는 바람이다. 이와 달리 고기를 먼 바다로 내몰거나 활동을 제약시켜 어획량을 낮게 하는 바람은 나쁜 바람이다. 계절과 수온의 변화에 따라 고기는 이동하기 때문에, 봄이 되어 수온이 올라가면 고기는 수심이 얕은 연안 가까이로 들어오고, 겨울이 되어 수온이 내려가면 깊은 먼 바다로 빠져나간다. 연구지의 지리적 특성상 고기는 대략 동서의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계절이 따뜻해짐에 따라 고기는 서쪽(과 남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고, 추위질수록 동쪽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어기(漁期)인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부는 따뜻한 바람이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좋은 바람인 것이다. 풍명으로 보면, ‘마파람’, ‘늦마’, ‘늦바람’, ‘늦하누’가 이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가을에 부는 선선한 ‘하누바람’도 좋은 바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날씨가 선선해 고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늦바람’과 ‘늦하누’가 제일 좋은 바람이다. ‘늦바람’을 “고기 모는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봄과 여름에 따뜻한 서풍이 불면 먼 바다로 나갔던 고기들이 연안 가까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를 이루어 고기가 없는 또는 고기가 안 잡히는 나쁜 바람은 겨울과 봄에 부는 찬바람이다. 즉, ‘하누바람’과 ‘늦새바람’, ‘새바람’ (및 ‘안새바람’)이 그것이다. 특히 어기인 봄이나 가을에 부는 ‘늦새바람’과 ‘새바람’은 고기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 어획량을 떨어뜨린다. 이를 두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늦새바람이나 새바람이 불면 고기가 골치 아파서 엎저 버린다.” 또는 “새바람이 불면 고기가 머리 아픈 바람이다.”가 그것이다. 특히 ‘새바람’은 어기에 고기를 먼 바다로 몰아내는 대표적인 나쁜 바람이다. 즉, ‘마파람’부터 ‘늦바람’을 포함하여 ‘하누바람’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바다에 고기를 흔하게 하는 좋은 바람이고, ‘하누바람’부터 ‘새바람’을 포함하여 ‘안새바람’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바다에 고기를 귀하게 하는 나쁜 바람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늦바람’은 고기를 연안으로 모는 좋은 바람이고 ‘새바람’은 고기를 먼 바다로 내보내는 나쁜 바람으로 강조된다.

둘째, 어로활동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바람은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어 어장에 나갈 수 있는 바람이고, 나쁜 바람은 날씨도 굵고 파도도 높아 어장에 나갈 수가 없는 바람이다. 조업하기에 좋은 바람은 대표적으로 ‘늦바람’과 ‘하누바람’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반면에 ‘하누바람’과 ‘새바람’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쁜 바람이다. 그런데 ‘마파람’과 ‘늦마’의 경우는 따뜻한 바람으로서 고기가 많아 좋



〈그림 5〉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의 구분

은 바람이이기는 하나,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날이 갠 때 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어장에 지장을 주는 나쁜 바람이기도 하다.

요컨대, <그림 5>와 같이 남북을 축으로 놓고 보면, 찬바람인 ‘높새바람’과 ‘셋바람’이 있는 동쪽은 나쁜 바람의 영역이고, 따뜻한 바람인 ‘늦바람’과 ‘늦하늘’이 있는 서쪽은 좋은 바람의 영역인 것이다. 이 구분은 대략적으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구분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림 3>을 참조할 것) 제일 좋은 바람은 ‘늦바람’과 ‘늦하늘’이고, 제일 나쁜 바람은 ‘높새바람’과 ‘셋바람’이다. 이와 달리 ‘하늘바람’과 ‘마파람’은 양면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하늘바람’은 가을에는 고기의 활동량이 많은 선선한 좋은 바람이지만 겨울에는 차가운 나쁜 바람이며, ‘마파람’은 고기를 많이 하는 따뜻하고 좋은 바람이지만 비바람과 파도가 세서 어장을 나갈 수 없게 하는 나쁜 바람이기도 한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어촌 사회의 중요한 생태환경의 범주로서 바람이라는 기후 현상에 대한 민속지식의 발달을 민속구분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기술·분석했다. 첫째, 방위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이다. 기본적으로 팔방풍명이 사용되고, 바다가 위치한 남향 중심의 공간 지각의 발달에 따라 바람의 지각도 남풍을 앞바람으로 구분하는 인지적 정향이 나타났다. 둘째, 계절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이다. 바람은 계절의 기온 변화에 따라 차거나 따뜻한 것으로 구분되고, 비와의 관련성에 의해서도 구분되었다. 계절과 바람의 관계는 어로활동이 가능한 따뜻한 계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셋째, 어로활동에 따른 바람의 구분법이다. 파도, 물때, 풍선 운항 및 어로활동의 호불호와의 관계에서 바람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인지되었다. 특히 바람의 좋고 나쁨에 대한 분류 기준은 어획량 및 조업 가능성과 관련된 어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바람의 민속구분법이 보여주는 고평만 어민들의 인지체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따뜻한 계절과 서쪽에서 부는 바람의 현저성이다. 개별 바람으로는 (‘늦마’와 ‘늦하누’를 포괄하는) ‘늦바람’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바람의 영역으로 말하자면 봄부터 가을까지 부는 ‘따뜻한 바람’과 북·서·남쪽에서 부는 ‘좋은 바람’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전자는 주된 어로시기에 나타나는 바람이고, 후자는 주된 어로공간이 위치한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지리적 특성상 동쪽으로 만입한 만내 연안 어촌인 연구지에서는 어로시기 및 어로공간과 바람의 관계에서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관심이 발달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변화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과 관련된 바다의 상태 및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자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촌 사회에서 발달한 바람의 분류 지식은 바다에서의 어로 활동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을 반영하며, 특히 어로서기 및 어로공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민들의 바람에 대한 민속지식은 어로활동과 관련된 기후현상에 대한 어로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설명될 필요가 있다.

어촌 사회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뜻밖에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모든 바람이 위험하고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람은 재산상의 피해나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기의 서식지인 바다를 청소해주고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해주며 고기의 움직임에 활발하게 해 어획량을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상황에 따라 바람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바람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태도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다.

많은 어촌 사회 연구들은 어촌과 바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바람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의 어로활동 및 바다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 연구는 어로활동과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바람이 구분되고 인지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방위에 따른 풍명의 구분을 넘어서 계절 및 어로활동의 관계 속에서 바람의 분류 지식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고는 바람의 민속지식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 또는 변화의 양상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오늘날 기계배를 타기 때문에 풍선 운항에 선호되던 바람과 물때의 관계는 어로활동에서 더 이상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기후 환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바람에 대한 전통지식이 어떻게 재해석

또는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들은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끝으로 한국 어촌 사회와 바다 생태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화 연구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을 두 가지 정도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연안 어촌과 도서 어촌 간에 바람의 명칭과 범주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어촌 사회가 농촌 사회보다 바람의 구분체계가 더 발달했다는 일반화를 넘어서서, 어촌 사회들 내에서도 문화의 지역적 변이가 발견된다. 이 차이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촌의 구체적인 지리적 차이와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체계의 발달 사이의 관계가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람의 의미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영역들도 논의가 확장되어 어민문화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근래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람, 구름, 비, 안개 등 기후에 대한 어민들의 전통지식 관련 민족기후학(ethnoclimatology)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Carbonell 2012).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인류의 문화자원을 지키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함한희 2012: 31). 기후의 전통지식은 인간과 환경 간 긴밀한 관계를 입증한다. 그런데 신기술 및 다른 요인들과 함께 기후 변화(climate change)는 인간이 그들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개입해, ‘기상적 정향(meteorological orientation)’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Carbonell 2012: 63-64). 그러므로써 기후에 대한 전통지식이 교란되거나 전승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긴밀한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어촌 사회의 바람 및 다른 기후현상에 대한 민속지식도 재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민속지식의 재구성 및 재해석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5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 2015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8일

## 참고문헌

김주관

- 2007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1): 민족과학 방법의 적용,” 『언어와 문화』 3(3): 105-126.

방중현

- 1931 “東西南北과 바람,” 『朝鮮語文』 2: 19-21.  
1939 “方位의 이름,” 『한글』 64: 558-562.

왕한석

- 1994 “영해 지역의 언어 분화에 대한 일보고,” 한국어연구회 편, 『국어학 연구: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서울: 태학사, pp. 587-615.  
1996 “언어·사회·문화: 언어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3-50.  
2009a “제1장 경기 강화도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1: 서편』, 경기 파주: 교문사, pp. 13-112.  
2009b “제2장 부산 동래 지역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1: 서편』, 경기 파주: 교문사, pp. 113-222.  
2010a “제1장 진도군 조도(鳥島)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21-213.  
2010b “제2장 고창(高敞) 지역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215-366.  
2012a “제1장 통영시 사랑도(蛇梁島)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9-311.

- 2012b “제2장 선산(善山) 지역의 언어문화,” 왕한석 편,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313-541.

이승녕

- 1967 “한국어발달사 下: 어휘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pp. 263-321.

장태진

- 1968 “방향에 관한 풍명(風名) 어휘의 연구,” 『국어국문학』 41: 1-46.

조숙정

- 2014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함한희(편)

- 2012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전승, 보전 그리고 인벤토리』,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p. 31.

홍순탁

- 1963 “『전남방언』에 대하여,” 『어문학』 9: 58-86.

Boas, Franz

- 1963 *Introduction to the Handbook of American Indian Languag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First printed by Smithsonian Institution, 1911).

Carbonell, Eliseu

- 2012 “The Catalan Fishermen’s Traditional Knowledge of Climate and the Weather: A Distinctive Way of Relating to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7: 62-75.

Casson, Ronald W.(ed.)

- 1981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Casson, Ronald W.

- 1983 “Schemata in Cognitive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2: 429-462.

Conklin, Harold C.

1955 "Hanunóo Color Categories," reprinted in Hymes, Dell, ed., 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pp. 189-192.

1962 "Lexicographical Treatment of Folk Taxonomies," reprinted in Tyler, Stephen A., ed., 1969, *Cognitive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41-59.

Colby, B. N.

1966 "Ethnographic Semantics: A Preliminary Survey," *Current Anthropology* 7(1): 3-32.

Frake, Charles O.

1961 "The Diagnosis of Disease among the Subanun of Mindanao," reprinted in Hymes, Dell, ed., 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pp. 193-206.

1962 "The Ethnographic Study of Cognitive Systems," reprinted in Tyler, Stephen A., ed., 1969, *Cognitive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28-41.

Martin, Laura

1986 "'Eskimo Words for Snows': A Case Study in the Genesis and Decay of an Anthropological Example," *American Anthropologist* 88(2): 418-423.

Spradley, James P.(ed.)

1972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Sturtevant, William C.

1964 "Studies in Ethnoscience," reprinted in Spradley, James P., ed., 1972,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pp. 129-167.

Tyler, Stephen(ed.)

1969 *Cognitive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Key concepts〉: wind, folk classification, traditional knowledge, ethno-science, ethnoclimatology, Korean fishermen, fishing

## The Korean Fishermen's Traditional Knowledge of Wind

Jo, Sook-Jeong\*

The wind is the very important weather condition for the fishermen to consider whether they should go into the sea to catch fish. The advanced lexical elaboration of wind reflects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fishermen and climate. This paper explores the Korean fishermen's traditional knowledge of wind. Especially it focuses on finding out the folk classification of wind and applies an ethnoscientific approach. This paper analyzes three aspects of ethnoclimatology, namely the folk classifications of wind in relation to eight directions, four seasons, and fishing situations. This folk classification of wind shows the relative salience of the warm wind and the west wind, which these categories mean the change of the sea as a fishing time and plac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fishermen's traditional knowledge of wind must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ir livelihood of fishing and the local sea as their fishery.

---

\*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